

상투성, 글쓰기의 적(敵)

조연정*

*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 교실 조교,

1

상투적인 것은 쉽고 편안하지만, 때로는 우스꽝스럽다. 이것은 우리가 농익은 트로트 구절이나 그 흔한 이별 노래들을 들을 때 받는 느낌에 예로 들면 간단히 설명된다.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내 얘기처럼 와 닿기는 하지만, 그 노랫말을 즐긴다고 하기에는 어쩐지 껌연쩍은 그런 기분 말이다. 얼마 전 인기를 끈 신세대 트로트 「어머나」라는 노래는 몇 번만 들으면, 그 멜로디는 저절로 흥얼거리게끔 되고, 가사는 입에 착 달라붙을 정도로 익숙해져서 흥겹게 부를 만하다. 그렇지만 “여자의 마음은 갈 대랍니다” “소설 속의 영화 속의 멋진 주인공은 아니지만”, “더 이상 내게 이러시면 안 돼요” 등의 고전적인 멘트들은 어쩐지 우습고 민망하다. 그 안에서 어떤 진지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나」는 세련된 편곡에다 그 상투적인 가사를 오히려 무기로 삼아 신세대 트로트라 하여 그 분야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진부한 가사를 일부러 우스꽝스럽게 만듦으로써 역으로 신선함을 느끼게 했다고나 할까. 새로움보다는 오히려 익숙함에 주력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는 대중가요에서조차, 이처럼 상투성이 미덕일 수는 없으며, 그 익숙함 속에서도 예기치 못한 감흥을 이끌어내는 수고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익숙함과 놀라움, 상투성과 참신성의 경계를 가르는 것

은 아주 사소하고도 미묘한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글쓰기에서도 그것은 아주 작게는 한 단어, 혹은 한 글자 차이의 문제일 수 있다.

베르그송에 따르면 규칙성은 웃음을 유발한다. 반복적인 규칙성으로 인해, 살아 있는 생명에게서 생명이 없는 기계장치를 생각나게 하는 것은 희극적이라는 것이다. 거기에는 직업적 습관, 고정관념, 매번 반복되는 표현 문구 같은 것들도 포함된다. 쉽게 말해 어떤 상황에서도 자꾸만 반복되는 것은 웃음을 주는 것 이외에는 별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쾌락과 웃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 작용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만한 것들이지만, 이것이 글쓰기에 적용될 때는 사정이 좀 다르다. 우리가 웃음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러지 않는 한, 글쓰기에서 반복되는 것, 즉 상투적인 것은 가장 피해야 할 적이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상투적’이라는 말은 늘 써서 버릇이 되다시피 한 것을 일컫는다. 새로움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자 덕목인 학술적 글쓰기에서, 이제까지 버릇이 되다시피 한 주제나, 관점이나, 표현을 따를 필요가 있을까? 베르그송의 말마따나 그것은 한 편의 글에서 그 생명력을 빼앗아버리는 일이다. 좋은 글을 쓰고 싶다면 일단 상투적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요소들을 다 거두어버려야 한다는 생각을 지녀야 할 것이다.

물론 글쓰기에서 반복되는 모든 것이 적은 아니다. 반드시 반복되어야만 하는 것들도 있다. 특히 학술적 글쓰기에는 그 형식에 있어 다소 엄격한 관습, 즉 전형적인 틀이라는 것이 요구된다. 논문은 논문 나름대로, 서평은 서평 나름대로, 실험·조사 보고서는 또 그 나름대로 일정한 형식에 따라 씌어져야 한다. 예컨대, 논문의 서론에는 연구사 검토와 문제 제기, 연구의 시각이 포함되어야 하고 참고문헌은 마지막에 제시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말이다. 이처럼 글의 성격에 따라 지켜져야 하는 일정한 패턴, 즉 가장 일반적이고 본질적인 형태를 우리는 ‘전형’(典型 type)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전형을 따라야 한다는 의무가 지나쳐 그러한 패턴 안에서 어떠한 파격도 없이 기계적으로 글을 쓴다면 말 그대로 판에 박

은 듯한 스테레오 타입을 만들어내는 일이며, 이것은 창조적인 행위와는 전혀 무관하다. 그러나 반대로 새로움에 대한 욕구가 지나쳐 이러한 형식적인 틀 따위는 다 무시하는 것도 학부생의 리포트에서는 안 하느니만 못한 시도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 여하튼 리포트에서는 따라야 할 일정한 형식이 있으며, 따라서 한 편의 글이 상투적인가, 참신한가를 따질 때 중요한 것은 일단 관점과 표현의 문제로 국한될 수 있다. 형식과 구성에 있어서 모범이 될 만한 '전형'을 따르되, 주제적 측면에서의 '고정관념'과 표현의 측면에서의 '클리셰'(cliché)를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고민해야 할 것은 '다른 관점'과 '참신한 표현'에 관한 문제이다.

2

한 편의 글에서 관용어처럼 굳어진 표현들이 자주 눈에 띄는 때, 우리는 당장에 그 글이 진부하고 식상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처럼 어떤 글은 문장 하나, 단어 하나에 의해서 그 전체적인 이미지가 평가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글을 쓸 때 늘 긴장하고 조심해야 한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표현들이 담아내고 있는 주제나 관점에 관한 것이다. 뻔한 주제 아래서는 뻔한 말만 하게 되기가 쉽다. 그렇다면 주제적 측면에서의 새로움은 어떻게 찾아질 수 있을까? 남들이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대상을 발견하여 글쓰기의 체계로 삼는다는 것은 학부생의 차원에서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방법은 두 가지다. 다른 방향에서 보기, 혹은 좁게 생각하기.

매일 보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한 자신의 얼굴도 낯설어 보이는 때가 있다. 평소에는 볼 수 없는 옆모습이 찍힌 사진이나, 혹은 나의 얼굴 중 어느 부위만 클로즈업된 사진을 본다면, 우리는 이게 내 얼굴이 맞나 하며 어색해할 것이다. 이처럼 익숙한 것이 어느 순간 낯설게 느껴질 때 그것이 처음에는 불편할 수도 있지만 결국 풍부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고 때로는 진실에 더 가깝기도 하다.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다. 될 수 있으면 통념에서 벗어나는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주제를 택하기보다는 초점을 좁게 잡도록 해보자. 이러한 태도는 결과적으로도 글을 참신하게 만들지만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된다. 리포트는 자신이 학습한 내용을 요령 있게 정리하는 과정이다. 주제가 상투적이고 보편적이고 추상적이라면 어디서부터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도 감이 잘 안 잡힐 것이며, 알게 공부를 해도 시쳇말로 ‘그까이꺼 대충’ 적당히 글을 쓸 수 있다고 안심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자세도 느슨해질 것이다. 그러나 남들과는 다른 관점을 택했다면, 통념에서 벗어나는 그 생각을 자기 나름의 탄탄한 논리로써 납득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근거가 필요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남보다 두 배 세 배 공부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남이 해놓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간다는 생각에, 즉 자신이 가치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보람도 넘칠 것이다.

예컨대 문학작품 하나를 분석한다고 해도, 기존의 해석들을 따라가며 부분부분 자신의 생각들을 덧붙이는 방법은 힘 안 드는 안전한 길일 수는 있지만, 자신의 글을 생기 있게 만들지는 못한다. 가령 고전의 반열에 오른 어떤 작품이 자신에게는 그다지 훌륭하게 다가오지 않았다면, 과감하게 그 작품이 훌륭하지 못한 이유를 자기만의 기준을 세워 증명해나가는 방법을 택하는 것은 어떨까. 물론 의욕만 앞서고 그 내용이 설득되지 않는다면 기존의 해석을 반복하는 것보다도 더 실패한 글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은 있지만 말이다. 실제로 어떤 학생은, 현대 음악의 작곡에 있어 뚜렷한 족적을 남긴 존 케이지에 대한 감상평에서 ‘현대 음악이 주는 불유쾌함은 의도된 것이다’라는 명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이 과연 예술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현대 음악에 대한 통념에서 벗어나는 생각을 개진했다. 그것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예술의 다양한 정의와 예술의 속성, 예술의 기능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예술의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남들에게 납득시

키기 위해 상당히 고심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주제적 측면에서 상투성을 피하는 길은 과감성과 성실성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겠다.

요컨대 과감하게 택한 새로운 관점이 독자에게 익숙하게 보이도록 그것을 자연스럽게, 즉 논리적으로 설명해내는 것이 글쓰기의 과제이다.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수사도, 익숙한 어구나 관용적 표현도 아니다. 그렇다면 표현의 새로움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두말하면 잔소리지만 참신한 표현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어휘를 아는 것이다. 우리말을 가장 자유자재로 구사할 것만 같은 소설가나 시인들도 『국어사전』을 옆에 끼고 상황에 적절한 단어 하나를 골라 내기에 고심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을 것이다. 글자로 된 무엇이든 많이 읽는 것은 기본이고 말이다. 그게 그 사람들 직업이니까라며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꿔 말할 수도 있다. 어느 정도는 언어에 민감하도록 타고났고, 그래서 우리말 구사에 그토록 능통한 사람들도 사전 찾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데, 그들보다도 한참이나 미숙한 우리는 참신한 표현을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생각해보자고 말이다. 즉 새로운 표현을 찾고자 한다면, 사전을 곁에 두자. 그리고 책을 읽다가도 맘에 드는 표현이 있다면, 다음에 내가 글을 쓸 때 흉내를 내보겠다는 생각으로 메모를 해두자.

글자 자체에는 생명이 없겠지만, 그러한 글자 하나하나를 이어 붙여 한 편의 글에 생명을 부여하는 것은 글 쓰는 사람의 의무이다. 생명이 있고 나뉘는 개성을 지닌 우리는 생명이 있는 글을 써야 마땅하다. 남들만 큼만 하자는 생각은 글쓰기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며, 기계적이어서 소모적인 웃음만 유발하는 글을 만들어낼 뿐이다. 우리는 한 문장, 아니 한 단어를 쓰더라도, 남이 쓰지 않은 것을 쓰고, 남이 쓴 것보다 더 잘 쓰자는 의욕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욕적인 태도를 지닌다면 남들이 ‘버릇처럼 하는 말’을 따라하는 일은 스스로에게 절대로 용납될 리 없고 결국 참신한 글,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것이다. 